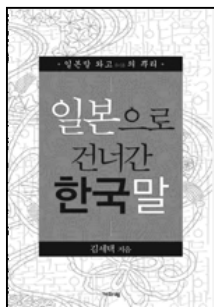


■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말 - 일본 와고(和語)의 뿌리



(김세택 저, 도서출판
기파랑, 920쪽)

36년간 외교관으로
봉직했던 김세택 대사가
최근 펴낸 저서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말-
일본 와고(和語)의 뿌리

”는 일본말 속에 숨겨진 한국말을 찾아내어 일본말의 뿌리가 한국말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구름(雲)’을 의미하는 일본말의 ‘쿠모’는 우리말의 ‘구름’에서, 자잘한(細) 상태를 의미하는 일본말 ‘사사라’는 우리말의 ‘자잘’에서 유래하였으며, 한국에서 흔히 대마도로 부르는 일본의 츠시마 섬은 동 섬이 두 개의 섬으로 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짝섬’에서 짝섬-주서마-주시마-츠시마로 변화되었을 수도 있고, ‘둘섬’이기 때문에 두 섬-두서마-두시마-츠시마로 발전되어 왔을 수도 있음을 음운 대응의 법칙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쓰다(書), 그리다(畫), 묘사하다(描)에 대응하는 일본어 ‘가쿠’는 음운대응의 법칙에 따라서는 전혀 연결되지 않으나, ‘쓰다’라는 말의 意味資質인 속성에는 ‘긋다’라는 자질이 있음을 밝혀낸다. 이는 우리가 글을 쓰는 것을 속어로 ‘몇 자 긋었다’는 표현을 흔히 쓰는 데서 알 수 있으며, 고대에는 대체로

글이나 그림을 갑골이나, 암석에 뽕족한 것으로 ‘긋어’ 그렸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다’의 의미자질인 ‘긋다’가 ‘긋어’로 중국에는 ‘가쿠’로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극히 단편적인 사례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양 언어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례들의 설명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수많은 일본 고유어의 언어인 와고(和語)가 한국어와 연결되어 있음을 비교언어학적 분석도구와 깊은 역사지식 및 치밀한 논리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서문과 기본 해설 부분을 제외하고, 4,000에 가까운 일본어 어휘를 표제어로 선정하여 그 어휘와 한국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설명 부분만해도 87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가히 일본 와고(和語)의 어원 사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한국인에게는 더욱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한국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를 이렇게 많이 찾아내는 것만해도 비범한 통찰력과 노력이 필요한데, 상호 관련성을 밝히기 위하여 어학적 분석과 동시에, 인접과학의 지식과 사색을 통하여 일정한 논리적 체계를 구축한 저자의 부단한 집념과 노력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어문학부가 아닌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외교관의 길을 택한 저자의 교육적 배경

을 생각하면, 사계의 전문가도 해내기 쉽지 않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모아 책으로 펴낸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글이 없을 때 구전으로만 내려오는 말은 상당 기간동안 본래 모습대로 이어가는데, 문자가 등장하면 말은 그 문자대로 변하게 마련이라는 데에 유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은 8세기에 음절 문자인 가나(仮名)가 등장하면서 한국어의 받침이 자연히 소멸되는 등 그때까지 일본에서 쓰였던 한국어는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그 후에 조선에서도 훈민정음이 발명되면서 그때까지 쓰였던 조선어가 훈민정음에 따라 발음됨으로써 큰 변화를 겪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양국의 언어를 분석하고 있다. 양국 언어간의 관계를 탐구하는데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하게 천착해 왔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책은 고대로부터 여러 사정으로 일본 열도로 건너간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들이 오늘날 일본 와고(和語)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는 가설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측에서 보면 일응 아전 인수의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본서가 일본어의 어원을 찾는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일본말 속에 묻어있는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을 찾아, 오랜 세월이 걸쳐 맺어진 숙명적인 관계를 조명하는데 조그만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는 소박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일본의 학자, 지식인들이 한반도 한국인의 일본열도 이주를 최소화시키면서 천황중심의 일본 역사에 한반도인은 별다

른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일본의 역사인식을 바로 잡지 않고는 올바른 한일관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소회를 비치고 있는바, 이러한 생각이 일본어의 뿌리 추적에 더욱 탐닉하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저자가 일본어의 뿌리가 한국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역사적 근거가 있다. B.C. 4세기 이래 한반도로부터 일본으로 벼농사가 전래되면서 한반도인의 이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것이며, 한반도에 정치적 격변기가 도래할 때마다 한반도인의 일본으로의 집단적 이주가 빈번히 이루어졌으며, 특히 백제인의 대대적인 이주가 두드러졌음은 ‘일본서기’에 잘 나타나 있다. 일본이 한반도 지배를 합리화할 때마다 자주 들고나오는 ‘한반도 임나일본부’ 설은 오늘날은 이미 왜곡된 역사로 일본의 학계도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60년대 ‘임나일본부설’의 진위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시기, 북한의 역사학자 김석형은 ‘일본 열도내 삼한 분국설’을 주장하여 일본 학계에 크나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은 한반도인의 일본 진출이 많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의 지배적인 언어가 한국어(백제어)였을 것이라는 가설의 신빙성을 강화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이론이나 사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측 학자나 지식인들은 애써 한일 간의 역사에 눈을 감고 더욱 그러한 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 일본 학계에서는 고유의 일본어인 와고(和語)의 어원과 관련하여, 극히 일부가 한국에서 유입되었음

을 인정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어의 뿌리는 한국어라는 가설이 더욱 힘을 발휘하려면,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논리와 사례들이 일본측에서 널리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측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렇게 되는 날, 저

자의 이론체계를 뒷받침하는 보다 학술적인 진보가 이루어 질것으로 믿는다.

중세의 철학자이며 천문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재판에 회부되어 지동설의 포기를 명령 받았을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독백한 것처럼, 누가 뭐래도 저자는 “그래도 일본어는 한국어가 모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듯 하다.(편집실-사부성) **외고**

■ 20대, 세계무대에 너를 세워라



(김영희 저, 동아일보사, 253쪽)

본서의 내용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하나는 어린 소녀 시절부터 가졌던 넓은

세상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환경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강한 도전의식과 굳은 신념,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 그 꿈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진솔하게 소개한 입지전적인 저자의 자서전이다.

또 하나는 30년 이상을 국제무대에서 활동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경쟁이 공존하는 세계무대를 향해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큰 꿈을 가질 것을 당부하면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제시한 인생지침서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저자의 지나온 삶의 역정을 잠깐 살펴보고자 한다.

1949년 8월 전라북도 완주군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농가의 9남매 중 여덟 번째로 태어난 저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장래 세계무대에서 나라를 위하여 활동하는 외교관이 되겠다는 꿈을 키웠으나 가정형편으로 지방명문 여고 졸업

후 대학진학을 포기하고 서울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 중구청에서 근무하면서 야간대학에 입학,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걸 걸고 1972년 8월 독일에 간호보조원으로 건너갔다.(1960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을 위한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한 인력수출의 일환으로 독일에 간호원과 광부를 파견하였으며 연인원이 18,000여 명에 이름.)

독일의 시골병원에서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학진학을 위한 준비를 병행, 3년 후인 1975년 9월 유럽의 명문대학인 쾰른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동 대학 예비과정부터 시작하여 10년이라는 짧은기간에 교육학석사, 철학박사학위(1986년 2월)까지 취득하였으며, 그 후 동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강의한 최초의 외국인 여성으로서 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러나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 붕괴와 1990년 10월 독일통일이라는 역사적인 대변환의 시기에 저자는 1991년 3월 독일전문가로서 외무부에 특별채용되어 국제무대에서 국가를 위해 활동하겠다는 그의 오랜 꿈을 이루었으며, 2005년 9월 주 세르비아대사에 임명됨으로써 대한민국 여성대사 제3호가 되었다. 그리고 18년간의 외교관생활을 통하여 2002월드컵 한일공동개최유치활동, 이디오피아 내전당시 우리 교민의 안전한 탈출, 코소보독립 승인문제등 주요 현안해결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모국에서 고졸과 무명의 야간대학 1년 재학이 학력의 전부였던 저자가 세계 일류명문대학에서의 박사학위 취득 및 교수생활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업무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전정신과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남다른 노력과 철저한 자기관리 등이 함께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점은 저자 스스로의 표현인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어떤 시련도 극복해내는 열정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 한다”, “모든 것을 걸고 온갖 고통을 감내하며 독일에 간 것은 인생최고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열정때문이었다”, “특별한 성공은 특별한 도전과 남다른 노력의 결과이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젊은 날의 고생은 인생의 특별수업이다”, “안 되는 이유를 먼저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패배자이다”, “철저한 준비와 실력을 갖춘 자만이 기회의 열차에 탑승이 가능하다”, “간호보조원, 가난한 유학생들은 고통이 아닌 희망이었다”라는 말에서도 들어난다.

저자는 순탄하지 않았던 환경과 어려운 시련의 극복을 통하여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외모중시, 개인중심적이며 안일한 삶의 추구, 그리고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보다 타인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넓고 큰 세상에

서 우리 사회와 국가 그리고 세계문제가 포함된 “큰 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부문이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면서 예측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경쟁자는 선진국의 인재들이지만 궁극적인 극복대상은 자기 자신이라 하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안목의 소유,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의 축적과 독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해내려는 열정과 의지,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한 인격 그리고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그 성취에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서는 글로벌시대에 인생의 긴 항해를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삶이 보다 가치있는 삶일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아야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으며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독자 자신의 몫이긴 하지만, 정직, 성실, 열정, 끈기를 가지고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를 향해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매진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의 특권이자 아름다움 일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인생의 목표 또는 가치관의 설정에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편집실-정석권) **외교**